

# 아이들을 위한 생일케이크 후원 약속

## 완주 줌마프레·마더쿠키

완주군에 소재한 줌마프레협동조합(대표 성수정)과 푸드인완주 마더쿠키영농조합(대표 강정래)이 관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생일케이크 후원을 약속했다.

21일 완주군은 줌마프레협동조합과 푸드인완주 마더쿠키영농조합이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생일축하케이크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완주군 드림스타트가 취약계층 아동 및 그 가족에게 아동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너의 생일을 축하해' 프로그램을 계획한 것에 따라 2개 기관이 후원을 약속한 것.

이번 후원을 통해 드림스타트 아동 400여명이 약 800만원 상당의 생일케이크를 지원받게 됐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역사회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두 기관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향후 다양한 지역자원을 발굴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더쿠키영농조합은 지난 2010년 완주군 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했으며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건강간 빵세트 기부 등 다양한 방식의 지역사



완주군은 21일 줌마프레협동조합과 푸드인완주 마더쿠키영농조합이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생일축하케이크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회 환원사업을 하고 있다. 줌마프레 협동조합 역시 기부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자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제방을 연중 공급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정읍시 태인면, 경로당 방문 현장행정 벌여

정읍시 태인면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 간 지역 내 49개 경로당을 방문 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행정 실천에 나섰다.

지난 12일 지로 부임한 이남석 면장은 지인들로부터 받은 축하 화분 50여 개를 전달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이어 주요 면정사항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 주민들의 애로와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특히 '정읍방문의 해'를 맞아 연꽃이 아름다운 피향정(보물 제288호)과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하는 '3.1운동 기념행사'에 면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면장은 이후에도 기관단체와 이장협의회, 부녀회 등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갖는 등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남원시 인월면, 취약계층 황사 마스크 지원

남원시 인월면은 지난 20일부터 관내 저소득층, 독거노인, 아동 청소년과 면사무소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미세먼지를 예방해주는 황사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맞춤형복지 운영비로 총1천개를 구입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챙기고 촘촘히 지역주민에게 다가서는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진명현 인월면장은 "지역주민을 위한 좋은 복지 사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찾아가고 다가서는 복지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복지제감도 향상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진안군, 문화재방재의 날 맞아 유관기관과 합동 화재 대응훈련

진안군은 문화재 보호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방재의 날을 맞아 유관기관 합동 화재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군은 21일 천황사 대응전(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7호)에서 실시된 합동소방훈련에는 진안군청,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재)문화재이웃치연구소 문화재 돌봄사업단, 무진장소방서, 진안비19안전센터, 천황사 등 유관기관과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화재 발생 상황에서 각자의 임무, 역할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초기 진화에 성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화재에 대한 사전 예방을 통해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군민 스스로도 문화재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 송천정보통신학교, 전주연탄은행 밥상공동체와 협약 체결

법무부 전주소년원(송천정보통신학교, 교장 오연호)과 전주연탄은행 밥상공동체(대표 윤국춘)는 업무협약을 2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주연탄은행 밥상공동체는 가난한 이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어가는 전북 및 전주 지역 봉사단체로 전주송천정보통신학교 학생들에게 정기적인 배식봉사, 현장학습, 사회견학, 개방차우 지원, 장학금 지원 등의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퇴원 후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마음과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한편, 업무협약 체결을 마치고 전주연탄은행 자원봉사자들과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위원들은 학생들과 학교관계자들에게 삼겹살을 직접구워 먹는 소중한 시간도 함께 했다. /김영태 기자

## 김제 부랑면 주민자치위, 원평천 등서 국토대청결운동

김제시 부랑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순덕)는 21일 2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평천과 생태공원 일대에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청소구역은 관내에서 쓰레기가 상습적으로 버려지고 있는 원평천과 생태공원 일대이며 원평천은 낚시객들이 사시사철 드나들며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고 통행하는 차량 등에서 다리 아래로 쓰레기를 던져 지저분하게 쌓이는 곳이다. 지난 18일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한 시민이 이를 건의된 바 있어 부랑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시청에서 처리해 줄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옷 소매를 걷고 나선 것이다.

부랑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의 문제들을 작은 것부터 해결하려는 위원들의 뜻을 모아 국토대청결운동을 연중사업으로 정하고 분기별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그리하여 벽골제와 농생명센터를 찾는 탐방객들로 인하여 부랑이 김제에서 유동민구가 가장 많은 점을 착안하여 부랑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끗한 김제가 미지를 실어 주기 위하여 작은 일이지만 이같은 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주민자치위원회의 이같은 청결운동은 부랑의 10개 사회단체에 과급되고 있어서 새마을부녀회 등 다른 사회단체들도 국토대청결운동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부랑면은 매월 사회단체들을 1개 단체씩 배정해 민간이 주도하는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진안경찰, 다기능·다목적 대테러예방 순찰교육

진안경찰서(서장 이연재)는 지난 20~21일 이틀에 걸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기능·다목적 대테러 예방 순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세계적으로 민간인 대상 테러가 빈발하고, 급증하는 불법 체류자 중 국제테러 단체와 연계를 목적으로 혹은 테러조직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잠입한 경우 이를 사전에 인지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지역경찰, 형사, 정보 등 외근경찰관이 기본업무를 수행하면서 테러방지, 안전사고대비, 범죄예방'을 병행 다기능·다목적 순찰을 통해 범죄 예방활동으로 테러 위협에 대비와 현장 대응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연재 서장은 "테러 위협에 대한 상시적·일체적 예방체계 운영으로 경찰은 항상 대비 태세를 갖추고 테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민 기자

## 본사 내방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

## 공동육아나눔터·자녀돌봄품앗이 사업설명회

사회복지법인삼동회 무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장진원)에서는 지난 20일 무주반디유치원에서 원생 학부모 30명을 대상으로 공동육아나눔터 및 자녀돌봄품앗이 사업설명회를 실시했다.

공동육아나눔터 및 자녀돌봄품앗이란 자녀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부모-자녀 참여 형 가족품앗이 활동 강화를 목표로 무주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새로운 돌봄 문화 조성과 지역 중심의 가족 친화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에 장난감 및 유아동도서 대여 및 공간운영과 원활한 육아를 위한 상시프로그램이 실시되며, 자녀돌봄품앗이는 체험활동 품앗이, 육아 품앗이 등 여러 육구를 가진 가족 그룹을 결성하여 월 1회 이상 활동 시 그룹별 3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 육아성격의 체험위주활동이다.

이번 설명회의 주 내용은 위 사업의 취지, 공동육아나눔터 및 자녀돌봄품앗이에 대한 소개, 이용방법, 회원가입 방법 등 올 한해의 공동육아나눔터 및 자녀돌봄품앗이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홍보하며 진행되었다.

이날 설명회를 주관했던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장진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전년도보다 더 많은 무주군민이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이용하여 이웃과 소통하고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열린 공동체 공간의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군산시의회 김영자 의원,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 수상

군산시의회 김영자 의원은 21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9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 시상식에서 정치부문 공도대상을 수상했다.

2019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 시상식은 대한민국 기자협회와 언론인연합협의회, 국민행복시대 단체가 주관하고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 조직위원회에서 주최해 정치 및 사회, 문화, 예술, 과학, 스포츠, 일반기업 등 각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가발전은 물론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김영자 의원은 평소 이웃과 사회에 대한 남다른 봉사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한부모 가정과 아동, 위기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민원해결 및 주민속원사업에 헌신과 열정으로 임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과 위대한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방의회 혁신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기초의원으로서 그동안 군산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산대학교 약학대학 유치'를 위한 건의문과 '비호모에 일지리와 보금자리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5분 발언 등 다양한 방형제시와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영자 의원은 "이번 상은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뜻으로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 정읍경찰 농소파출소,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 농소파출소(소장 권기홍)에서는 시민들의 약점을 구실삼아 갈수록 지능, 고도화되는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해 관내 마을회관을 방문해 홍보활동을 가졌다.

특히 최근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휴대폰으로 다운로드 받게한 후 개인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포함한 16가지 피해사례를 알려주고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권기홍 농소파출소장은 "보이스피싱은 한 번 발생하면 검거하기가 바다에서 진주를 찾는 것보다 어렵다. 따라서 관내에서 단 한 건의 보이스 피싱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한 교육과 홍보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무주경찰, 성희롱 예방·인권주제 직장교육 실시

무주경찰서(서장 윤종섭)는 지난 20~21일 이틀간 경찰서 전 직원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경찰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직장교육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서장보(무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강사를 초청하여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성인지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 등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이 진행됐다.

한편, 최재화(한국심리분석연구소 대표) 강사는 '함께하는 행복한 인권'이라는 주제로, 경찰의 업무수행과 인권을 사며 위주로 교육하면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종섭 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인식력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이어 나가고,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책임지는 '인권경찰로 발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